

가을에 딱 맞는 우리 가족 힐링 여행

안녕하세요

안산공장 품질관리팀 박종원 과장입니다.

6월 힐링 캠프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장모님이 적적해 하시는 것 같아 장모님을 모시고
가을에 걸맞은 여행지를 찾아 떠났습니다.

결정한 장소는 전남 구례에 있는 천개의 향나무숲이라는
개인 정원 및 숙박이 가능한 여행지였습니다.

우선 구례에 도착하기 전에 점심으로 가는 길에
전남 전주에 들려 맛집으로 유명한 곳을 갔습니다.

전주에 가면 당연히 비빔밥이겠죠?

그래서 육회비빔밥을 시켰는데 비빔밥 치곤 의외로 푸짐한
상차림에 서비스로 주는 육회 및 밑반찬에 절로 감탄이 났고
맛도 당연 일품이라 싹 다 비우고 다시 구례로 출발했습니다.



장장 300km 달려 전남 구례에 있는 천개의 향나무숲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이 마중을 나오셨고 들어가는 입구가 저희를 반겨줍니다~
입장료가 있으나 저희는 숙박을 할 거라 사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그냥 입장했습니다.



우선 숙소에 들어가니 정리도 잘되어 있고 깔끔했습니다.
장단점으로는 숙소에 흔히 있는 TV나 각종 게임기, 냉장고는 없고
숙소 안에서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인 책이 잔뜩 있더군요 ㅎㅎ



딱 보자마자 느낀 점은 정원을 잘 가꾸고
가을에 맞는 힐링 장소로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의 추천과 안내를 받으며 산책할 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정원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꽃과 나무를 보고 사진도 찍으며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주 넓은 잔디밭은 정말 장관이었고 아이들이 뛰놀며
가족이나 연인들이 힐링하기에 아주 좋아 보였어요.
이번 여행 중 가장 맘에 드는 장소였습니다.



정원을 한 바퀴 돌고 다음 장소로는 정원 내부에 있는 전시장이었습니다.
전시를 주관하는 작가님의 작품 설명을 들으며 보니 공감이 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천개의 향나무숲 사장님이 직접 차려 주시는
아침 토스트와 요거트 그리고 커피로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공기 좋고 풍경도 좋은 장소에서 식사는 정말 힐링 그 자체 !!!



정원 내부에 있는 카페도 사장님이 정말 이쁘게 잘 꾸미셨어요.
그릇과 찻잔들은 수제로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식사를 마치고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다음으로 간 곳은
구례에 오면 꼭 가야 한다고 추천을 받은 화엄사를 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 본 사찰 중 불국사 다음으로 이렇게 큰 사찰은 처음이었어요



화엄사까지 돌아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쉬웠지만
정말 즐겁고 기분 좋은 여행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가족들과 함께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힐링 캠프 여행기였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